



지난 6월 20일(수)에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부평건강가정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8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주안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사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함께 토론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연예인이 되어 인기를 끌고 있고, 길거리에 서도 여행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다문화'라는 단어만 익숙할 뿐, 아직까지 우리 내면에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부평건강가정포럼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족'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도민정교수(유엔미 심리상담연구소장)는 『다문화사회 마음 열기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으며, 윤상석 소장(공존플랜 소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동네, 같은 문화권, 언어권의 사람만이 아니라 종교,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고 같이 협력해 일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을 하고 협력하느냐의 정도(다문화 감수성)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역설 하였습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지도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들어,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말 정말 잘한다. 언제 한국 왔느냐?”라는 미묘한 모욕이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원을 선정할 때, 가장 늦게 외국인 학생을 팀원으로 포함시키는 미묘한 무시가 존재합니다.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런 미묘한 차별적 행동(microaggression)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그 사회에 잘 생존하고 적응하는 자녀로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AP Now 적극적 부모역할 창시자 마이클 팝킨)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가정들은 얼마나 다문화적 감수성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사회 통합의 인격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시도해 볼만한 대화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학교나 학원에서 다문화 친구들을 만난 본 적은 없는지를 물어보고, 다문화 친구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함께 발견하고, 다문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가정에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제안해 봅니다.

주안교회 몇몇 교구에서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구역 모임을 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동환 목사님(외선국 담담교역자)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모두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강연자와 토론자 분들,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지역주민과 주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